



2026년 6월 5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 RA 김정현

키움증권

인플레이션 재확인과 ECB의 선택

다음 주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와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향후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는 둔화되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4%를 상회하며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원물가 역시 3%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진전은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또한 주거비 상승세 둔화와 노동시장 수요 약화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와 달리 근원물가의 급등 가능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준의 추가 긴축 필요성은 시장 우려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로존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시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반영해 ECB의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목표치(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성장세가 불안정한 만큼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주요 선진국의 긴축 기조는 글로벌 시장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6/8~6/12)

| 일자 |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 컨센서스 | 이전치(잠정치) |
|---------|--------------------------|----------|-----------|
| 6/8 | 유로존 6월 섀틱스 투자자기대지수 | - | -16.4 |
| 6/9 | 美 5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 - | 95.9 |
| | 美 4월 무역수지 | -\$55.0b | -\$60.30b |
| | 中 5월 무역수지 | \$91.00b | \$84.80b |
| 6/10 | 中 5월 CPI (YoY) | 1.3% | 1.2% |
| | 中 5월 PPI (YoY) | 3.9% | 2.8% |
| | 美 5월 CPI (MoM) | 0.5% | 0.6% |
| | 美 5월 CPI (YoY) | 4.2% | 3.8% |
| | 美 5월 근원 CPI (MoM) | 0.3% | 0.4% |
| | 美 5월 근원 CPI (YoY) | 2.9% | 2.8% |
| 6/11 | 유로존 6월 ECB 통화정책회의(재용자금리) | 2.40% | 2.15% |
| | 美 5월 PPI (MoM) | 0.7% | 1.4% |
| | 美 5월 PPI (YoY) | - | 6.0% |
| | 美 5월 근원 PPI (MoM) | 0.5% | 1.0% |
| | 美 5월 근원 PPI (YoY) | - | 5.2% |
| 6/12 | 美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 46.0 | 44.8 |
| 연준위원 발언 | - | |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